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⑮

재가불자가 나아가야 하는 길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 18년 동안 캄보디아 국경마을에서 외길을 걸으며 세운 수레꾼 초등학교·중학교·공예학교 전경.

캄보디아에는 약 1만명 남짓한 한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프놈펜에 살고 있으며, 시엠립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도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한국 개신교 선교 인력입니다. 정식 선교단체와 교단에서 파송한 장기 선교사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대략 2500명에서 3000명 규모의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선교와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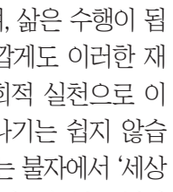
주목할 것은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종교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의료봉사를 하고 가난한 주민들을 돕습니다. 직업훈련원도 운영하며 젊은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도 가르칩니다. 캄보디아 곳곳을 다니다 보면 이런 한국인들의 활동 흔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NGO 활동은 어떠할까요? 캄보디아는 국민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 대표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불교 국가에서 장기간 머물며 활동하는 한국 스님과 불교계 NGO 관계자의 수는 대략 50여 명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느 종교가 더 훌륭한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되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한국불교는 세상 속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재가불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가불자는 단순히 '출가하지 않은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생활을 떠나지 않고 일상의 삶터에서 '부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불교에는 자비, 보시, 이타행, 보살행이 있습니다. 다른 생명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바라보는 깊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르침이 재가불자들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가불자에게는 출가 수행자와는 다른 조건과 힘이 있습니다. 사업가, 의사, 교사, 기술자, 농부, 요리사,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여러 직군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가불자의 힘입니다. 세상 속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이웃을 위해 내어놓을 때 그 사람의 직업은 보시가 되고, 경험은 자비가 되며, 삶은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재가불자의 힘이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절에 가는 불자에서 '세상으로 가는 불자'로, 법문을 듣는 불자에서 '자비를 행동으로 옮기는 불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불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읍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면 그 두 손을 다시 펴야 합니다. 부처님 앞에서 모았던 두 손은 세상으로 나아가 누군가의 손을 잡기 위해 다시 펴져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재가불자가 세속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인지도 모릅니다.

순수 재가불자 NGO인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바로 이러한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 캄보디아 최북단 국경마을에서 18년째 한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⑧ 학생으로 화현하신 부처님들과 함께

'무불교' 청년 불성 꽃피우도록 이끌 터

혼신의 노력 꿈 키우는 예술대학 학생들

부처의 성품 지녔으나 불자임을 모를 뿐

이들 불성 드러내도록 함께 걸어가려 해

지난 4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다녀간 25만명 중 20·30대가 73%, 종교가 없다고 답한 이가 48%였다고 합니다. 불교 굿즈 앞에 줄 서고 불경 리믹스에 손 흔들던 이들의 절반 가까이가 스스로를 무종교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종교는 없지만 불교에 내적 친밀감을 가진 이들을 가리켜 '무불교'란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無)는 부정이 아닙니다. '불자'라는 내적 구속감·소속감보다는 불교의 진정한 자유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이들이라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불자로 규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를 반가워하고 사찰 예절을 따라 배우는 동아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스스로를 종교에 가두지 않으면서도 불교를 좋아하는 이들 이야말로, 어쩌면 더 깊은 불자의 씨앗을 품은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예술대학은 다른 단과대학과 달리 서로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학과들이 모여 있습니다. 미술학부는 학기마다 전시 준비에 밤을 새웁니다. 연극학부는 무대를 위해 연습에 땀 흘리고, 영화영상학과는 촬영과 편집에 젊음을 바칩니다. 스포츠문화학과는 훈련과 합숙을 거쳐 실전 경기를 치르고, 한국음악과는 전통을 계승하며 소리에 혼을 담아냅니다. 학과마다 삶의 모습도 이토록 다르니, 한자리에 모이는 일 자체가 매번 작은 무대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진선미는 이 다양함과 자유로움 속에서 예술이 지닌 아름다움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해 보자는 뜻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꿈꾸며 세워진 동아리입니다. 한마음으로 삼귀의를 부르고 반야심경을 외는 동안에는 여느 대학생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초대로 작품과 공연, 영상과 경기를 접하는 순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치 학생으로 화현하신 부처님을 마주하기라도 한 듯, 그들을 향해 찬탄과 축원을 보내게 됩니다. 다만 이들은 예술의 길이 지닌 끝없는 불안과 좌절을 거듭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은 자리에서도 최고의 마음을 담아내야 하는 현실과 AI의 발전이 이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AI와 디지털을 활용한 명상코칭 연구를 이어 온 저는 언젠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과 AI가 그린 부처님은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돌아온 것은 물음이었습니다. 스님이시라면 프로그램이 그려낸 부처님과 몇 해를 두고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그려낸 부처님 가운데, 어느 쪽에 공경과 예배를 올리고 싶으시냐고. 마치 조주 선사의 물음을 마주한 듯했습니다. 답을 들으려는 질문에, 도리어 마음으로 되물어왔기 때문입니다. '무불교'라 부르기에는, 이들은 이미 마음의 의미와 뜻을 분명히 알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부처임을 미처 알지 못하듯, 이들 역시 자신이 불자임을 아직 알지 못할 뿐입니다.

지도법사로서 이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이 모든 인연이 학교와 건학위원회, 진선미를 아껴주시는 여러 어른들의 보살핌 덕분임을 새깁니다. 그 은혜에 기대어 아직 스스로를 불자라 부르지 않는 청년들의 불성이 저마다의 빛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학생 전법과 부처님의 마음이 진선미 회원들의 손끝으로 이 세상에 다시 그려지기를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은산 스님
동국대 예술대학 불교동아리 '진선미' 지도법사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㉙ 부처님의 사투리

부처님도 사투리를 썼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인터넷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출구가 보였다. 그래서 내린 결론. 부처님은 사투리를 썼다는 것. 쓴 정도를 넘어 사투리 옹호자였다는 것. 역시 부처님 최고. ('비전문가의 특권(?)'에 기대어 하는 이야기이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가장 미천한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의 언어를 사용했다. 주로 활동한 곳인 갠지스강 중류의 마가다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마가다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인도 사회를 지배하던 바라문교의 성전 〈베다〉를 적는 베다어를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여러 곳으로 교화를 펼칠 때도 그 지역의 말을 사용하게 했다. 불교가 세계 종교, 보편 종교가 된 배경이기도 하다.

월정사의 적광전 앞에는 팔각구층석탑(국보)을 향해 무릎을 꿇고 공양을 올리는 석조보살좌상(국보)이 있다. '약왕보살'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양식의 보살상이라 한다. 비유컨대, 한국불교만의 문화적 사투리다.

손영자 작가



월정사 적광전.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